

스페인과 함께 세계문화주간 운영

전주시, 6월 플라멩코·영화·월드타파스데이 등 개최

전주시가 문화강국으로 평가받는 프랑스와 영국에 이어 스페인과 함께 전주세계문화주간을 운영한다. 전주시는 오는 6월로 예정된 전주세계문화주간에 플라멩코와 스페인 영화 등 스페인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스페인 문화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스페인문화주간을 통해 외국의 독자적인 문화를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주의

문화를 스페인에도 알릴 예정이다. 약 1주일간 열릴 이번 문화주간은 6월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시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주한스페인대사와 주요 오프라인 리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오프닝리셉션으로 문을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페인 남부의 전통적인 민요와 무용으로 구성된 세계적인 민속예술 플라멩코쇼와 스페인의 영화들이 상영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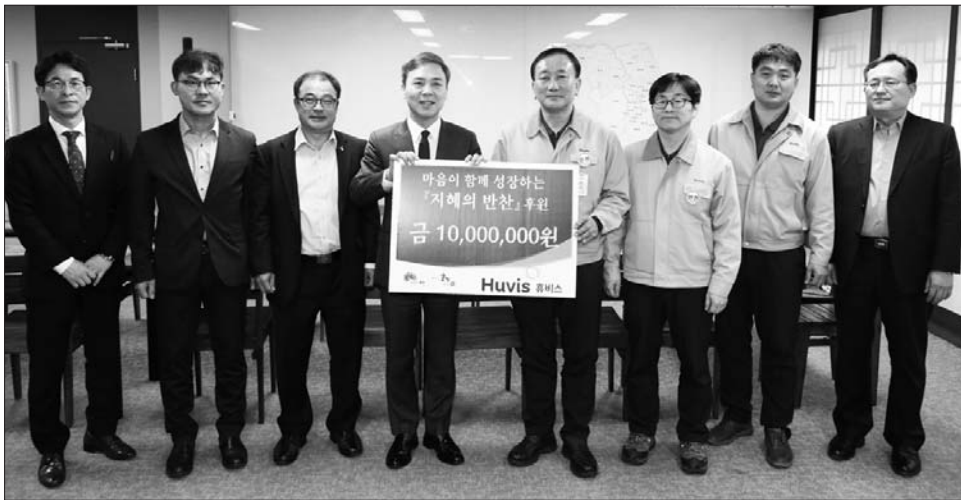
특히, △플라멩코와 판소리 △타파스와 막걸리 △스페인 와인과 전주 음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주의 고유문화와 스페인문화와의 접목도 시도된다.

시와 주한스페인대사는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기 위해 기획전시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고 스페인도시와 전주시간 교류관련 협의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프랑스 주간을 시작으로 2017년 영국문화주간, 2018년 미국문화주간 등 매년 성황리에 외국대사관과 문화원 등과의 네

트워크를 통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알리고 전주의 문화를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전주세계문화주간을 운영해왔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스페인문화주간은 단순 스페인 문화를 전주에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접목해 전주시의 문화도 스페인에 홍보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내년 한국-스페인수교 70주년을 앞두고 스페인에 전주를 홍보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지혜의 반찬 성금 1000만원 전달 휴비스 전주공정은 7일 전주시청을 찾아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도서를 지원해 마음의 양식을 채우도록 돕는 '지혜의 반찬' 성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전주시 제공)

전주시, 올해 공동체 활성화사업 본격 착수

사회적 경제기반 성장토록 맞춤형 교육 등 적극 지원키로

전주시가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켜 활기를 불어넣는 2019년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육성하는 '2019 온두레·아파트 공동체 사업'과 '2019 원도심 마을계획 사업'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일 전주시 마을공동체활성화 위원회를 열어 61개 온두레공동체와 11개 아파트공동체, 원도심 마을계획 사업 9개동을 최종 선정했다.

온두레공동체의 경우, 공동체성과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1단계인 디딤단계 공동체를 선정했다.

또, 2단계인 이음단계는 공동체 확장 시 수익모델 개발 가능성 완성단

체인 희망단계는 향후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제시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각각 선정했다.

아파트 공동체의 경우, 시는 구성원의 자율적 참여 의지와 아파트 내부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들간 자주민나 소통을 강화하는 사업을 우선 선발했다.

이어, 원도심 마을계획 사업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구성원들의 다양한 참여와 역할 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마을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선정된 공동체들의 성장을 위해 사업비와 함께 맞춤형 교육과 1:1 컨설팅을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유회와 총회, 포럼 등 공동체간 만남과 활동의 장을 꾸준히 제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성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선정된 공동체에 대해 맞춤형 교육 및 1:1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특히 희망단계 공동체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법인 설립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해 더 많은 공동체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8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올해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공동체 대표 및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 /송효철 기자

슬로시티 철학·가치 확산 이끌어간다

전주 슬로지기 프로그램 선정 5개 공동체와 오리엔테이션

슬로시티 철학과 가치를 전주시민들에게 확산시킬 전주슬로지기 공동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주시는 7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2019 슬로지기(서포터즈) 프로그램 발굴·운영 사업'에 선정된 5개 공동체 대표와 회원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국제슬로시티로써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일종의 서포터즈 개념인 전주슬로지기 공동체들은 향후 슬로시티의 이념과 철학을 이웃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주슬로지기 공동체들은 전주형 슬로시티의 이념과 철학을 전파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참여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활



동사항 품평회를 거쳐 우수 공동체에게는 오는 10월 1일 개최되는 '제3회 한국슬로시티 주민협의회 활동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전주 슬로시티 강사를 대표해 최옥희 강사가 공동체 대표 및 회원들의 슬로시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슬로시티의 의미와 철학 △전주 슬로시티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강연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슬로지기 공동체 대표는 "슬로시티 정신과 철학을 실천하는 전주 슬로지기로서 전주 모든 시민들에게 슬로시티의 정신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주시가 세계 슬로운동에 이끌어가는 슬로시티의 수도로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각 공동체들이 전주 슬로지기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버닝선 마약 논란' 전북경찰, 마약사범 단속

12개 부서 참여 추진단 구성 5월 24일까지 유통사범 단속 대형 유흥주점 일제 점검 등

최근 강남 버닝선 등 클럽 내 마약류 투약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자 전북경찰도 대대적인 마약 범죄 단속에 돌입한다.

전북경찰청은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마약류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자 2부장을 중심으로 마약수사대와 광역수사대, 과학수사대, 강력계, 112상황실, 생활안전계 등 12개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추진단을 구성, 운영한다.

이들은 오는 5월 24일까지 3개월 간 마약류 유통사범, 의사안전구역 내 마약류 밀반입사범, 약물 피해 의심 성폭력사범, 불법 촬영물 유통사범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 생활질서·형사·여성청소년과 경찰은 마약류 범죄 예방 및 선량한 풍속 확립을 위해 클럽 등 대형 유흥주점을 일제 점검한다.

약물 범죄 관련 112 신고는 '코드' 이상으로, 약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코드0' 및 선량한 풍속 격상해 신고 초기부터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경찰관과 유흥업소 간 유착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첩보 수집도 강화할 방침이다.

강황수 전북경찰청 2부장은 "마약 밀반입과 유통·투약은 물론이고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불법 촬영물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 계획"이라며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멸미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천만원을 중국 총책에 전달하려던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7일 사기 방조 혐의로 A모(30)씨와 B모(2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1시 47분경 익산시 한 카페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 2000만원을 중국 총책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뒤, B씨를 만나 전달하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심부름을 해달라'는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매달 120만원에 추가 성과급을 준다는 취업사이트 구인 광고에 속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한편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중국 총책의 뒤를 쫓고 있다. /강석훈 기자

범죄신고 112 · 화재신고 119



7일 전주시청에서 전주시와 (사)전북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불법 광고물 자율정비 지정·운영 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민·관 협력 불법광고물 근절

전주시-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자율정비 협약

전주시가 민간단체와 손을잡고 불법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7일 (사)전북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와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지정·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불법광고물이 집중적으로 개시·배포되는 주말과 휴일, 공휴일에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불법광고물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 인력 부족 등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하는 주말 및 공휴일에 게릴라식으로 광고업 종사자들이 자율 정비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을 근절하지는 취지로 추진됐다.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올 연말까지 10개월 동안 주말 및 공휴일을 활용해 백제대로와 롯데백화점 인근 등 7개 구간의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일제 정비를 벌인다.

시는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에 일제정비 활동내역과 불법광고물 수거물량에 따른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도시농업 전문 활동가 양성

도시농업 전문가과정 개강... 작물재배 등 5월 9일까지 교육

전주시가 도시농업 전문활동가 양성에 나섰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는 7일 지역의 도시농업 확산과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개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강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교육은 수강생 40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도시농업의 이해 △작물재배 △토양관리 △트릿발습 등이다.

전체 교육과정의 80%를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이 주어지며 교육수료

후 유기농업, 종자, 원예 등 기능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농업축산식품부에서 발급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학교텃밭 운영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앞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도시농업전문가과정을 운영, 현재까지 총 93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경찰, '꼬리물기' 특별단속 실시

전북경찰이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꼬리물기 차단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신호?보행자보호?통행방법(꼬리물기) 등 교차로 3대 법규위반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출·퇴근 시간 전주 ▲진북광장 ▲서곡광장 ▲서학광장 ▲이동교 옆 (구)이브자리 3가 등 혼잡한 주요 교차로 4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캠퍼드 영상 단속 장비를 활용해 신호 및 보행자 보호, 교차로 통행방법 등 교차로 3대 법규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지점에는 홍보 현수막과 표지판

등을 설치해 단속 일립과 안전 운전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보행자 안전 위협 행위 중점 단속도 병행한다.

이석원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도민이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도로 위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서 발생한 교차로 내 사망자는 최근 3년(2016~2018) 평균 98명으로 전체 사망자(866명)의 33.9%를 차지했다. 특히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사고가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석훈 기자

'나체사진 뿌리겠다' 전 여친 협박 30대 실형

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7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헤어진 여자친구 B모씨에게 이전에 찍은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대로는 못 넘기겠다. 다 죽자"고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새 남자친구가 생겨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없다"며 "사진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협박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